

I. 최근의 國際收支 동향과 향후전망

1.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

原油가격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 円貨 강세로 일컬어지는 소위 3低현상이 금년들어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흑자기조 전환기의 外換정책방향



沈亨燮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세계경제는 활력을 얻어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우리경제도 이러한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높은 성장, 낮은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의 흑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왔던 국제수지는 86년 1~9월중 이미 25.2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이러한 수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억달러 적자에 비하여 32.8억달러가 개선된 수준으로 이러한 흑자전환은 25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의 흑자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들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1%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높은 신장세는 기계, 전자, 신발, 섬유등 선박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수입은 수출호조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수입 및 경기호전을 바탕으로 한 자본재 수입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原油수입의 감소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1.7%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對日 무역수지가 전년동기보다 21억달러 악화된 42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반면 對美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보다 22억달러 증가한 52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역외수지 동향을 보면, 적자폭이 전년동기의 10.7억달러에 비하여 6.6억달러에 그침으로써 4억달러의 개선

〈表 - 1〉 국제수지 동향

(단위 : 억달러)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
경 상 수 지	-46.5	-26.5	-16.1	-13.7	- 8.9	25.2
-무 역 수 지	-36.3	-25.9	-17.6	-10.4	- 0.2	24.4
○수 출	206.7	208.8	232.0	263.3	264.4	240.6
○수 입	243.0	234.7	249.7	273.7	264.6	216.2
-무 역 외 수 지	-15.2	- 5.5	- 4.3	- 8.8	-14.5	- 6.6
-이 전 수 지	5.0	5.0	5.9	5.4	5.8	7.3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자 지급 규모가 감소된데다 여형수입이 전년동기보다 거의 배로 늘어난 10.5억달러를 기록한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이전 수지도 해외로부터의 송금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약 3억달러 증가한 7.3억달러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금년중 우리의 경상수지는 무역, 무역외 이전의 모든 부분에서 현저한 개선추세를 보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금년의 이러한 국제수지 흑자전환이 외부경제 여건의 호전에 따라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흑자전환이나 하는 점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듯 하다.

국제경제여건의 호전이 우리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기 조하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할수 있게 된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안정화 시책과 산업구조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금년의 3저효과와 같은 외부경제요인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잘 활용할 수 있었던데에 보다 큰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되었던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81년도의 46억달러에서 82년에는 26억달러, 83년에는 16억달러, 84년에는 14억달러, 85년에는 9억달러로 꾸준히 축소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시책과 산업구조 조정노력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똑같은 대외경제여건의 호전하에서도 각국의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개선 실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2. 향후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국제수지 흑자는 대외 여건의 호전요인도 가세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체질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국제수지는 구조적으로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우기 石油을 제외하고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금리도 美國이 85년부터 채무국으로 전략함에 따라 급격한 상승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달러 가치도 현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美國 경기의 회복 및 日本의 J커브 효과의 본격화가 기대되고, 부품·소재의 국산대체노력도 그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6차계획기간중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여건면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계속 가중될 전망인데다, 原油가격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경우를 상정할 때는 아직도 불확실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II. 國際收支 흑자전환시의 특징과 파생되는 문제점

1. 국제수지 흑자전환시의 특징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높은 성장과 외채감소의 동시달성을 가능케 한다. 즉, 투자재원의 자력조달→高투자→高성장→소득향상→저축증대→흑자확대와 외채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의 양순환을 가능케 하고, 또한 이제까지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 및 환율인상이 불가안정 목표와 상충되었으나, 흑자시대에서는 수입억제의 확대와 환율안정을 통하여 불가안정→대외경쟁력 향상→수출증가와 국제수지 흑자라는 또다른 경로의 양순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3가지 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 가능토록 한다.

또한 대내외 개방화, 자유화의 제약요인이었던 경상적자의 해소에 따라 대내적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며, 금융면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룩하고 실물면에서는 동태적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이룩하여 수평적 국제분업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대외개방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등 경제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지위가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요청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 긴밀한 국제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2. 파생되는 문제점

가. 通貨관리의 어려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부문의 감축에 의하여 중화되지 않으면 과잉유동성과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通貨를 환수해 오던 해외부문이 통화살초 부문으로 반전됨으로써 흑자시대에는 통화공급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신용공급의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금년 1~9월중 해외부문을 통한 총통화증가 효과는 약2조6천억원(총통화의 8% 수준)에 달하므로써 총통화 증가를 선도하는 부문이 되고 있다.

나. 대내외 개방압력 및 보호장벽의 강화

경상수지 및 외채누증을 이유로 한 시장보호의 필요성 및 설득력 약화로 인하여 美國等 對我國 무역적자국으로부터 보호장벽과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내금리, 환율, 외환등에 대한 자유화 압력이 증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 소비증가 및 복지증진에의 욕구상승

실질소득의 증대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

우리나라는 거액의 대외채무를 안고있어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구제화되더라도 대외자본수지의 탄력적 조절과 국내부문에서의 중화적 대응을 통해 이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배함에 따라 과소비, 과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흑자전환을 계기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출 확대 기대가 국민경제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될 우려가 있다.

Ⅲ. 최근에 취한 주요 外換조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수지가 예상외로 대폭 개선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해외부문 통화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적정통화의 유지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미 60년대말, 70년대초에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日本과 台灣의 경우를 보면, 日本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을 부분적인 수입확대와 자본수출 증대를 통해 해외부문 자체내에서 흡수하고 정부부문도 적극적인 원충역할을 하였다.

台灣도 한편으로는 자본수입 억제와 수입확대를 통해 해외부문에서의 흡수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신용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 압력을 적절히 중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는 달리 거액의 대외채무를 안고있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압력이 구제화 되더라도 수입확대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축소 등으로 대처할 수는 없고, 외자도입의 억제등 대외자본 수지의 탄력적 조절과 국내 민간신용의 축소 및 공개시장 조작등 국내부문에서의 중화적 대응을 통해 이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외환시책은 해외부문 통화의 자체흡수 및 외채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단기자본 도입의 억제

무역신용기간을 종전의 90일(原油는 120일)에서 86년 7월10일 1단계로 60일(原油는 90일)로 단축한 바 있고, 86년 8월 21일 다시 항해일수 10일 이하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에는 30일로 다시 단축하였으며, 그 대상 품목도 종전의 실행관세율 30% 이하 품목에서 20% 이하 품목으로 축소하였다.

다만 原油의 경우는 현 정유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 그 시행시기를 87년 1월 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2. 外債대출의 축소

86년 8월 21일부터 외화대출의 억제를 위하여 86년 8월 20일 현재의 잔액을 은행별 외화대출 한도로 운용토록 하는 한편, 외화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및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관원리금 상환자금의 융자비율을 종전의 100%에서 80%로 축소하였는바, 이는 하반기 이후 국제금리의 하락 및 환율안정 등으로 외화금융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져 이 부분을 통한 민간신용의 증가를 억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개발기관의 대외차입 축소

경상수지의 계속되는 흑자로 개발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보전용 외화차입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또한 외화대출의 축소로 개발기관의 자체 외화소요가 줄어들음에 따라 하반기 이후의 차입계획을 대폭 수정, 국제금융시장 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4. 조건이 불리한 기존 外債의 조기상환 유도

계속되는 국제수지 흑자재원을 바탕으로 기도입한 외채중 조건이 비교적 불리하고, 조기상환을 하여도 貸主와의 마찰우려가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금년중 위와같은 조기상환규모는 약 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상업차관 인가기준 강화

또한 장기자본 도입억제를 위하여 86년 8월 9일 외자 지원비율을 종전의 100%에서 85%로 축소하고, 기준금리는 종전의 LIBO+7/8% 이내에서 5/8% 이내로 하

향 조정하고, 기간도 종전의 5년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보증차관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차관을 일체 불허하는 등 상업차관 인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6. 연지급 수입에 대한 수입보증금 부과

종전에는 일람불 수입에 대하여만 10%의 수입보증금이 부과되었으나, 86년 8월 21일부터는 연지급 수입에도 10% 수입보증금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민간자본 도입의 억제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시중의 파잉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7. 外銀지점의 스와프한도 축소

外銀지점에 의한 국내여신의 적정관리라는 측면에서 86년 9월 1일부터 기진출 外銀지점의 이익금 송금 유보액, 임의적립금 및 갑기금 증액분에 대한 스와프 한도를 인정치 않기로 한바 있으며, 신규진출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스와프 기본한도를 15백만달러에서 10백만 달러로 축소하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혜받은 재할금액의 75% 및 C.D 발행잔액의 100%를 기존의 스와프 한도에서 차감조치하였다.

IV. 향후 外換政策방향

1. 환율정책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현상 및 이에따른 외채문제로 환율운용면에서는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유동화를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환율운용은 현행 복수통화 바스켓 시스템에 의하여 중립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환시장의 정비, 육성등 제반 하부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2. 外換관리의 단계적 자유화 추진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환관리는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국제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일 경우 대외로부터 외환자

유화 압력이 가일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자유화 압력 이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장단기 외환자유화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우리실정에 맞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해 나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 내에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제한 완화, 외환집중제의 완화, 외국환은행 업무의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외국환관리체계를 「원칙 자유 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투자는 계속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의 회피, 필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첨단기술의 도입, 국내사 양사업의 對개도국 이전, 경영능력의 확충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장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 무역정책, 재정정책, 국내통화 신용정책, 외환정책등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완화토록 하여야 할 것인바, 외환정책방향에서는 장단기 자본도입의 억제, 외채의 조기상환, 해외투자의 점진적 확대등에 의하여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해 나가는 한편, 외국환 평형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유동성을 대폭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987년에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5.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의 전개

세계 교역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의 증대, 높은 경제성장, 국제수지 흑자전환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로부터 개방압력과 함께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행제도 내에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제한 완화, 외환집중제의 완화, 외국환은행업무의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외국환 관리체계를 「원칙 자유 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3. 外債의 관리와 외자도입의 효율화

현재 우리의 외채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수지의 흑자재원은 해외부분의 통화압력과 해외여건 변화의 충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외채감축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계속 자본도입의 억제와 조건이 불리한 외채의 조기상환이 지속되어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국제금융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외자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차원높은 외자조달 방식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채를 계속 감축해 나가고 외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 해외부문 通貨의 자체흡수를 위한 외환시책의 발전

국제수지 흑자폭이 점차 확대됨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출연의 확대를 통하여 아국의 위치를 확고히 재정립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응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對開途國 경제협력 활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987년부터는 소규모이나마 개발도상국과의 경제발전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